

한국적 색채 특성 분석에 따른 트렌드 색채기획

백 민 영 · 김 유 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석사과정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 120점, 한국적 디자인요소를 지닌 국내 디자이너 2인 이상봉, 이영희 컬렉션에서 각각 120점씩, 국내 대표적인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트렌드 색채 497색상을 대상으로 색채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한국적 이미지 상품개발에 색상 정보로 활용 가능한 색채 범위를 색채 팔레트로 제안하여 한국적 색채특성을 반영한 2011년 트렌드 색채기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색채분석은 표준화된 색채 전달 도구인 자연색체계(Natural Color System)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복식의 분석결과 색채 활용빈도는 Y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계열, B계열, N계열, G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복식의 경우 Y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여성복식의 경우는 R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남녀복식에 있어서 색채 활용의 빈도 차이가 존재했다. 둘째, 한국적인 디자인요소를 지닌 디자이너 2인의 색채특성은 이상봉의 컬렉션 색채 활용 빈도는 B계열이 가장 높았으며, N계열, R계열, Y계열, G계열 순이었다. 이영희의 컬렉션 색채 활용 빈도는 R계열이 가장 높았고, B계열, Y계열, N계열, G계열 순이었고, 이영희 컬렉션은 B계열과 Y계열의 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색채의 빈도 순위는 조선시대 여성복식의 색채빈도와 동일하게 나타나 한국적인 색채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봉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특성은 그 연관성이 미미하였다. 셋째, 최근 3년간의 국내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트렌드 컬러 분석결과 S/S시즌은 R계열, Y계열, B계열, G계열 순이며, F/W시즌은 R계열,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분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트렌드 색채의 자료를 기본 색으로 설정하고,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한국적인 색채를 새롭게 제시하여 한국의 전통성과 현대의 트렌드 감성이 어우러진 Universal Korea라는 새로운 테마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색채 트렌드, 패션 트렌드, 자연색체계, 한국적 색채, 색채 기획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의 가치를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패션디자인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디자인 요소들 중에서도 색채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중의 하나이다. 패션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색채의 적절한 예측과 기획은 매우 중요 부분이며, 색채를 보다 합리적으로 기획함으로써 패션상품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패션산업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개방화, 국제화로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개념에 따라 한국복식의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는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열림으로써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디자인의 식을 합리적, 논리적 사고로 전환시켜 현대의 시점에서 한국성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기였다.¹⁾

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도 이른바 ‘한국적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색채나 조형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색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음향오행에 기반을 둔 오방색과 간색에 의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음향오행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색채를 시각적인 것보다 관념화된 의미와 상징성의 역할로 보아 왔다. 그러나 관념적 논의가 색채연구의 전부로 남는다면 오늘날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국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는 한국적 색

채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과거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색채의 특성을 규명하고, 또한 컬렉션은 각 트렌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최종 결과물로서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 활용 특성과 각 트렌드 정보기획사에서 제시한 트렌드 색채를 비교 분석하여, 조선시대 색채, 트렌드 색채, 컬렉션 색채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이를 근간으로 미래의 한국적 이미지 상품개발에 색상 정보로 활용 가능한 색채 범위를 색채 팔레트로 제안하여 2011년 한국적 색채특성을 반영한 트렌드 색채기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론적 연구는 문헌과 학술연구지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색의 체계, 한국의 전통 색채, 패션 트렌드 색채, 디지털 색채에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실증적 연구로는 조선시대 복식 120점,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지닌 국내 디자이너 2인 이상봉, 이영희 컬렉션에서 각각 120점씩, 국내 대표적인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트렌드 색채 497색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색채 자료는 웹사이트 상의 디지털자료이며, 웹사이트 상의 디지털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각 컷마다 큰 이미지로 클로즈업이 가능하여 명확한 색채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에 반해 잡지, 도록 등 인쇄매체는 특성상 스캔하여 사용할 경우 원천자료의 색채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웹 사이트 상의 디지털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실물과 비교 시 색채 값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색채 값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가 보편화된 오늘날 극복해야 할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색채분석은 표준화된 색채 전달도구에 의해 색

채를 전달하기 위해 최근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자연색체계(Natural Color System)을 사용하며, 사진 자료를 포토샵(photoshop)프로그램에서 아이드로퍼틀(eyedropper)로 Lab(L*a*b*)색을 추출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Lab(L*a*b*)값에서 NCS색 값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NCS 색채 값을 N(무채색)계열, Y(yellow)계열, R(red)계열, B(blue)계열, G(green)계열의 계열별 색채 사용 빈도를 분석하고, 색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과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인 색채 규명을 위해 조선시대 복식 중 대표색 추출과 측색에 어려움이 있는 복식을 제외한 120점에서 총408개 색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한복의 전통양식이 성립되기 시작한 조선시대로 제한하며, 이는 섬유 특성상 오랜 시간 보관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작 연도가 명확하고 현존하는 유물의 수가 가장 많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물이 많다는 점 등에서 시대적 범위 설정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한다. 설정된 시대의 유물조사에 있어 박물관 설정은 서울소재 국립 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을 선정하였다. 이는 국립고궁박물관(<http://www.gogung.go.kr>),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http://museum.ewha.ac.kr>),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http://museum.sookmyung.ac.kr>),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http://cyber.museum.go.kr/web/ac/04_duksung/main.htm),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http://cyber.museum.go.kr/web/dankook/main.htm>)에 해당한다. 분석대상은 웹사이트상의 인터넷 사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복식에 나타난 복색을 정량적으로 분석·추출한 연구 자료는 한국적 색채의 특성을 규명하는 기준자료가 되므로 정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그중에서도 색이 선명한 유물을 선정하여 측색하

였다. 그러나 복식의 변색 및 탈색에 의해 당시의 색채 정량화가 어려우며, 실물 작품에서의 측색이 아닌 웹사이트상의 자료를 통해 측색하였으므로 색의 오차가 발생함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하고자한다. 자연색체계에 근거하여 조선시대 의복 60점, 장신구 60점 총 120점을 분석하였으며, 의복 60점 중 31점은 남성의복, 29점은 여성의복이며, 장신구 60점 중 남성용 29점, 여성용 31점으로 남성복식 60점, 여성복식 60점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조형성을 고찰하여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의 한국적 색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둘째, 최근 3년간 6시즌을 연이어 컬렉션을 개최하고 한국 복식의 전통미를 세계에 알리고 또한 디자인으로 표현해내는 디자이너 2인을 선정하여 대표색 추출과 측색에 어려움이 있는 복식을 제외한 총 240점에서 701개의 색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상봉과 이영희이며, 두 디자이너는 최근 3년간 6시즌 연이어 컬렉션을 개최하고,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외 컬렉션을 여러 차례 참여하여 세계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상봉은 한국복식의 형식보다는 색채와 디테일 중심으로 서양의 복식형태에 자수와 문양을 위주로 한국적 감성을 강조하고, 이영희는 한복의 선과 형태·색채적 측면을 많이 활용하며, 소재의 재질 및 색상과 그래픽적 요소로서의 문양을 한국 전통요소로부터 가져와 현대적으로 변용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조형미를 부각시키고 있다.²⁾ 또한 이영희는 미국 뉴욕과 맨해튼에 명품화 전략을 구사하며, 이상봉은 정통 서양복식에 한글 등 한국 전통 요소를 접목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³⁾ 이영희, 이상봉 등의 디자이너가 이미 한국 정통 복식 문화를 활용한 옷으로 세계무대에 섰고 지금도 서는 중이다.⁴⁾ 이는 본연구의 디자이너 선정이 타당함을 밝힌다. 색채분석은 2007~2010년 최근 3년간 6시즌 두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컬렉션의 색채자료는 서울 패션센터(<http://www.sfc.seoul.kr>)와 ELLE(<http://www.elle.co.kr>), 삼성디자인넷(<http://samsungdesign.net>), 디자이너의 개인 홈페이지의 웹사이트 상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디자이너 별로 한 시즌에 20점씩, 총 240점에서 701개의 색을 자연색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적인 색채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아울러 트렌드 색채와의 관계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최근 3년간 6시즌의 국내 인지도 높은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http://Samsungdesign.net>)과 인터패션플래닝(<http://www.ifp.co.kr>)의 웹사이트 상에 제시된 트렌드 색채 497개의 색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삼성디자인넷에서 257색, 인터패션플래닝에서 240색 총 497개의 색을 자연색체계에 근거하여 업체별, 시즌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패션 트렌드 색채의 특성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였다.

넷째,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 국내 디자이너 컬렉션의 색채, 트렌드 색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색채 정보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의 한국적 이미지 상품개발에 색상 정보로 활용 가능한 색채 범위를 색채 팔레트로 제안하였다. 트렌드 색채의 대표색을 기본색으로 설정하고,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분석을 통해 규명된 한국적 색채를 새로운 색으로 제시하여 2011년 한국적 색채특성을 반영한 트렌드 색채기획을 수립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의 체계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10만 가지 정도의 색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인간이 지각하는 수많은 색을 선택하고 전달하며 관리하는 사

용에 있어 시스템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색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색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대표성을 띠는 색을 선별하여 체계화한 것이 색체계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먼셀(Munsell) 색채시스템이 국가 기준으로 오랜 시간동안 자리 잡아 왔으나 점차 NCS 색채시스템이 새로운 색체계 시스템으로 부각되며 디자인 실무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NCS는 흰색, 검정, 노랑, 빨강, 파랑 그리고 초록의 6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색은 어떤 색상이 기본 6색상과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에 따라 표기되며, 'S 2030-Y80R'에서 색상을 나타내는 'Y80R'의 경우 두 개의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빨강이 80% 포함된 노랑을 의미한다. 색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무채색의 경우 neutral의 N을 붙여 나타낸다. 동일한 색상 안에서 검정량, 순색량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색의 변화를 뉘앙스(nuance)라고 하며 이는 삼각형 모양으로 된 수직단면에서 나타나고, 삼각형의 꼭지점은 각각 w(whiteness)는 흰색량, s(blackness)는 검정량, 그리고 c(chromaticness)는 순색량을 나타낸다.

사람은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구별하여 색채를 정확히 볼 수 없으며, 색상, 색조를 동시에 총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색상, 뉘앙스의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NCS는 배색이나 색채 계획시에 적용이 용이하다.⁵⁾

2. 한국전통 색채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인의 의식 세계는 음향오행의 우주 관계에 바탕을 둔 사상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색채 문화는 사상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적인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 민족의 색채 의식이 형

성되어왔다.

한국미의 특징은 선과 색채의 조화로운 예술이며 한복의 저고리나 버선의 모양, 또는 도자기 등의 선과 색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민족은 강하지 않은 색상을 사용해 왔으며 색상 대비도 단순했다. 고구려시대에 이르러 강하고 화려한 색상을 많이 사용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중후하고 둔탁한 색채가 조선시대에는 선명하고 다양한 색채로 발전하게 되었다.⁶⁾ 조선시대시대의 복색의 그 중심은 음양오행설에 근본을 둔 노랑, 빨강, 파랑, 검정, 하양, 즉 오방정색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오방의 중앙인 노란색은 황제의 복색으로 숭상되어왔으며 노란색 다음으로 중요하게 간주된 주홍색은 왕과 대소 신료의 복색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인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상류계급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치마의 색은 다홍이나 남색이 일반적이며, 자주색 치마는 왕실과 왕비 외에는 입을 수 없는 최고 권위의 상징이었다. 조선 태종 때까지는 고려시대의 여파로 신분제에 따른 구별이 엄격하지 않아 모든 관리에게 짙은 남색 옷이나 검붉은 옷을 입도록 장려하였다. 그러나 세종에 이르러 각 관청의 관리나 지방관리, 상공에 종사하는 사람, 노비 등 천민에게는 빨강 옷을 입지 못하도록 복색을 구분하였다.

3. 패션 트렌드 색채

색채는 그 시각효과, 이미지효과가 강하며 패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패션에서의 색채는 예측(prediction), 적용(application), 표현(description)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되어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착용자의 기호나 성격, 문화적 배경을 표현하며 의복 선택에 있어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⁷⁾ 패션산업 사회에서 색채는 조형적 감성요인의 하나이며, 감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색채는 소비자의 구매동기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복의 형태, 소재, 디테일 등 패션의 기호성 중에서도 가장 표층에서 변화를 주기 쉬운 시각적 기호로써 만드는 쪽에서도 구매하는 쪽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코드라 할 수 있다.⁸⁾ 패션이 자연스러운 진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 시즌 새로운 색이 끊임없이 생성되어야 하며 특히 패션산업에 있어서 색은 상품의 판매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다양화되고 개성화 되어있는 오늘날 이러한 경향을 강해지고 있다

4. 디지털 색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에 색채는 매우 중요한 조형요소이며 문자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써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웹사이트의 색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색채는 비트의 정보로 구성되고 숫자 데이터로 체계화된 색채로 정의되며, 디지털 카메라, CD 또는 스캐너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입력되거나 혹은 컴퓨터로 처리된 데이터가 모니터 혹은 프린터 등의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 색을 말한다. 이는 데이터 입·출력 장치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장치 의존적 컬러(device dependent color)라고도 한다.

인터넷에서의 색채를 의도한 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웹이라는 매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최종 결과물이 종이나 캔버스가 아닌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⁹⁾

III. 색채분석 및 색채기획

1.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색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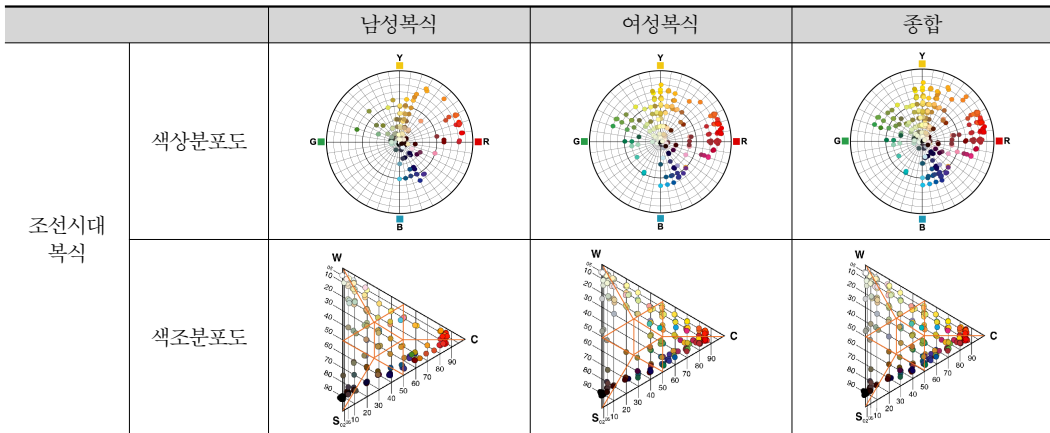
조선시대 복식을 남성복식과 여성복식으로 구분하고, 자연색체계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의 색채를 추출하고 색상환과 색삼각형에 분포시켜 각각의 색상, 색조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표 1>은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조선시대 복식의 색상, 색조 분포도이다. 조선시대 남성복식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4area,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군인 6area에 집중 분포했다. 색상은 BG계열에는 거의 분포되지 않았으며, Y계열과 RB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조선시대 여성복식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4area와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군인 1area에 집중 분포하였다. 색상은 BG계열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GY계열과 R계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 활용 특성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4area,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군인 1area에 집중적이었고, 색상은 BG계열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Y계열에 높게 분포하였다.

<표 2>는 조선시대 남녀복식에 나타난 계열별 색채의 빈도수로 다음과 같다. 남성복식에서는 Y계열이 4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R계열, B계열, N계열, G계열 순이었다. 여성복식에서는 남성

<표 1>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조선시대 복식의 색상, 색조 분포도



<표 2> 조선시대 남녀복식에 나타난 계열별 색채의 빈도수

| 조선시대 | N계열 (무채색) | Y계열 (yellow) | R계열 (red) | B계열 (blue) | G계열 (green) | 합계 |
|--------|--------------|-----------------|--------------|---------------|----------------|--------|
| 남성복식 | 16 | 69 | 43 | 27 | 13 | 168(색) |
| 백분율 | 9.52 | 41.07 | 25.60 | 16.07 | 7.74 | 100% |
| 여성복식 | 23 | 82 | 90 | 28 | 17 | 240(색) |
| 백분율 | 9.58 | 34.17 | 37.50 | 11.67 | 7.08 | 100% |
| 복식(종합) | 39 | 151 | 133 | 55 | 30 | 408(색) |
| 백분율 | 9.56 | 37.01 | 32.60 | 13.48 | 7.35 | 100% |

복식과는 달리 R계열이 3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Y계열, B계열, N계열, G계열 순이었다. 남녀 복식에 있어 색채 활용 빈도순위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복식 여성복식 모두 G계열이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분석을 통해 한국적인 색채특징을 파악하고, 출현 빈도에 따른 계열별 대표색을 선정하여 한국적인 색채를 규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색채기획을 위한 1차적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조선시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계열별 대표색은 다음과 같다.

Y계열 S4030-Y10R, S6020-Y20R, S7502-Y, S8010-G90Y 4색상, R계열 S0505-Y70R, S0585-Y80R, S8505-R20B 3색상, B계열 S5540-R70B, S8005-R80B 2색상, N계열 S0500-N, S9000-N 2색상, G계열 S1002-G50Y 1색상으로 총 12색상으로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군인 6area에 분포하였다.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조선시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계열별 대표색은 다음과 같다.

R계열 S1580-R, S1585-Y90R, S0585-Y80R, S1575-R10B 4색상, Y계열 S2020-G90Y, S2050-Y20R,

S4502-Y 3색상, B계열 S4055-R70B, S7020-R60B 2색상, N계열 S0500-N, S9000-N 2색상, G계열 S4040-G30Y 1색상으로 총 12색상으로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은 4area에 분포하였다.

2. 이상봉·이영희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 분석

자연색체계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의 색채를 추출하고 색상환과 색조각형에 분포시켜 각각의 색상, 색조 분포도를 분석하여 <표 3>,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3>은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2007-2009년에 걸쳐 이상봉 컬렉션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도이다. S/S시즌에서는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군인 1area에 집중 분포했으며,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군인 6area,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4area에도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색상은 비교적 채도가 높은 RB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BG계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W시즌에는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군인 6area에 집중 분포했으며,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군인 3area에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

<표 3>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이상봉 컬렉션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도 (2007-2009년)

| | | S/S | F/W | 종합 |
|---------|-------|-----|-----|----|
| 이상봉 컬렉션 | 색상분포도 | | | |
| | 색조분포도 | | | |

타냈다. 색상은 YR계열과 RB계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BG계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3년에 나타난 이상봉의 컬렉션의 색조로는 색조의 특성이 모호한 7, 8, 9area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1, 6area에 집중적이었다. 색상은 RB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BG계열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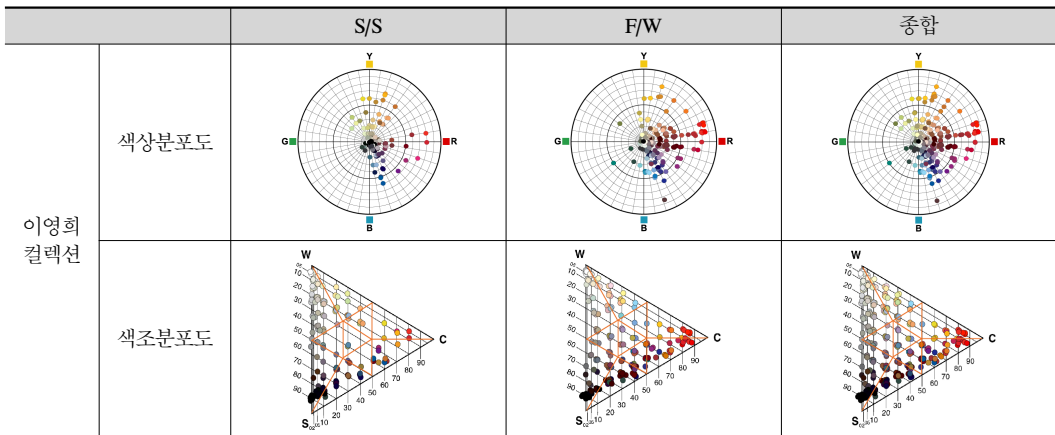
<표 4>는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2007-2009년에 걸쳐 이영희 컬렉션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도이다. S/S시즌에는 무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6area와 무채색에 가까운 엷은 색조군인 1area의 분포가 두드러졌다. 색상은 BG계열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채도가 낮은 중심 부근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F/W시즌에는

서는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군인 6area에 집중되었으며,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4area가 전체 S/S시즌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1area는 전체 S/S시즌에 비해 낮은 분포도를 나타냈다. 전체 3년에 나타난 이영희의 컬렉션의 색조로는 무채색에 가까운 엷은 색조군인 1area와 4area, 6area에 집중되었으며, 색상은 RB계열과 YR계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났다.

각 시즌에 따른 이상봉·이영희 컬렉션에 나타난 계열별 색채의 빈도수는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표 5>는 이상봉 컬렉션의 시즌에 따른 계열별 색채의 빈도수로 S/S시즌에는 B계열이 56.84%로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N계열, R계열, Y계열, G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F/W시즌에는 N계

<표 4>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이영희 컬렉션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도 (2007-2009년)



<표 5> 이상봉 컬렉션의 시즌에 따른 계열별 색채의 빈도수

| 이상봉 | N계열 | Y계열 | R계열 | B계열 | G계열 | 합계 |
|-----|-------|-------|-------|-------|------|--------|
| S/S | 35 | 17 | 26 | 108 | 4 | 190(색) |
| 백분율 | 18.42 | 8.95 | 13.68 | 56.84 | 2.11 | 100(%) |
| F/W | 57 | 29 | 28 | 19 | 1 | 134(색) |
| 백분율 | 42.54 | 21.64 | 20.90 | 14.18 | 0.75 | 100(%) |
| 종합 | 92 | 46 | 54 | 127 | 5 | 324 |
| 백분율 | 28.40 | 14.20 | 16.67 | 38.20 | 1.54 | 100(%) |

<표 6> 이영희 컬렉션의 시즌에 따른 계열별 색채의 빈도수

| 이영희 | N계열 | Y계열 | R계열 | B계열 | G계열 | 합계 |
|-----|-------|-------|-------|-------|------|--------|
| S/S | 27 | 48 | 35 | 46 | 4 | 160(색) |
| 백분율 | 16.88 | 30.00 | 21.88 | 28.75 | 2.50 | 100(%) |
| F/W | 30 | 25 | 95 | 62 | 5 | 217(색) |
| 백분율 | 13.82 | 11.52 | 43.78 | 28.57 | 2.30 | 100(%) |
| 종합 | 57 | 73 | 130 | 108 | 9 | 377 |
| 백분율 | 15.12 | 19.36 | 34.48 | 28.65 | 2.39 | 100(%) |

열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Y계열, R계열, B계열, G계열로 나타났다. 이상봉 컬렉션에 나타난 S/S시즌, F/W시즌 종합 빈도수는 38.20%로 B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N계열, R계열, Y계열 순으로 나타났고 S/S시즌에는 B계열, F/W시즌에는 N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시즌별 색채 활용의 빈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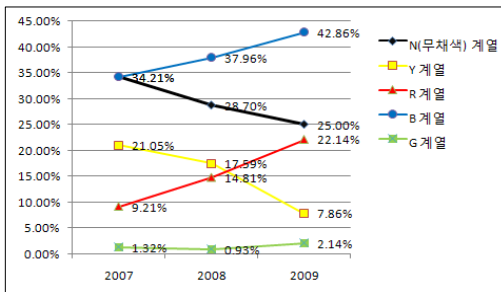
<표 6>은 이영희 컬렉션의 시즌에 따른 계열별 색채의 빈도수로 S/S시즌에는 Y계열이 30.0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B계열, R계열, N계열, G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F/W시즌에는 R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B계열, N계열, Y계열, G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컬렉션에 나타난 S/S시즌, F/W시즌 종합 빈도수는 34.48%로 R계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B계열, Y계열, N계열, G계열 순으로 나타났고, S/S시즌에는 Y계열, F/W시즌에는 R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시즌별 색채 활용의 빈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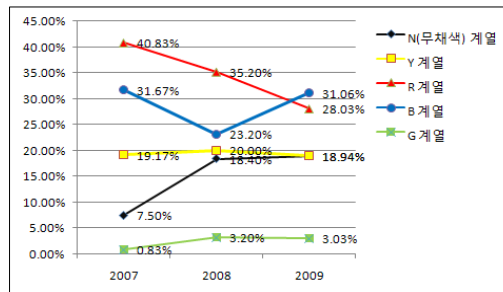
디자이너에 따른 각 연도별 색채계열의 변화도는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은 이상봉 컬렉션에 나타난 연도별 색채계열의 변화도로 N계열은 2007년에 34.21%에서 2008년 감소, 2009년 역시 25.00%로 감소하였다. Y계열은 2007년 21.05%에서 2008년 17.59%로 감소하였고 2009년 7.8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R계열은 2007년 9.21%에서 2008년 14.81%, 2009년 22.1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B계열은 2007년 34.21%에서 2008년 37.96%로 증가, 2009년 42.8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G계열은 2008년 1.32%에서 2008년 0.93%로 감소하였고, 2009년 2.14%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2>는 이영희 컬렉션에 나타난 연도별 색채계열의 변화도로 N계열은 2007년에 7.50%에서 2008년 18.4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9년



<그림 1> 이상봉 컬렉션의 연도별 색채계열의 변화도



<그림 2> 이영희 컬렉션의 연도별 색채계열의 변화도

18.94%로 다시 증가하였다. Y계열은 2007년 19.17%에서 2008년 20.00%로 증가하였고, 2009년 18.94%로 감소하였다. R계열은 2007년 40.83%에서 2008년 35.20%로 감소, 2009년 28.03%로 다시 감소하였다. B계열은 2007년 31.67%에서 2008년 23.20%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31.0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G계열은 2007년 0.83%에서 2008년 3.20%로 증가했으며, 2009년 3.03%로 감소하였다.

3. 트렌드 색채분석

자연색체계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의 색채를 추출하고 색상환과 색삼각형에 분포시켜 각각의 색상, 색조 분포도를 분석하여 <표 7>,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7>은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삼성디자인넷의 각 시즌별 트렌드 색채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

<표 7>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삼성디자인넷 색채트렌드의 색상, 색조 분포도 (2009-2010년)

| | | S/S | F/W | 종합 |
|------------|-------|-----|-----|----|
| 삼성 디자인넷 | 색상분포도 | | | |
| | 색조분포도 | | | |

<표 8>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인터패션플래닝 색채트렌드의 색상, 색조 분포도 (2009-2010년)

| | | S/S | F/W | 종합 |
|-----------------|-------|-----|-----|----|
| 인터 패션 플래닝 | 색상분포도 | | | |
| | 색조분포도 | | | |

<표 9> 각 업체에 따른 트렌드 색채의 계열별 빈도수 (2008-2010년)

| | | N계열 | | Y계열 | | R계열 | | B계열 | | G계열 | | 합계 | |
|----|-----|-----|----|-----|-----|-----|-----|-----|-----|-----|----|-----|------------|
| 삼성 | S/S | 1 | 6 | 40 | 76 | 40 | 83 | 31 | 62 | 17 | 30 | 129 | 257 (색) |
| | F/W | 5 | | 36 | | 43 | | 31 | | 13 | | 128 | |
| 인터 | S/S | 4 | 7 | 29 | 47 | 33 | 72 | 34 | 71 | 20 | 43 | 120 | 240 (색) |
| | F/W | 3 | | 18 | | 39 | | 37 | | 23 | | 120 | |
| 전체 | S/S | 5 | 13 | 69 | 123 | 73 | 155 | 65 | 133 | 37 | 73 | 249 | 497 (색) |
| | F/W | 8 | | 54 | | 82 | | 68 | | 36 | | 248 | |

도이다. S/S시즌은 밝으면서 연한 색조군인 2area, F/W시즌은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군인 5area에 분포하여 차이점을 보였으며, 무채색에 가까운 엷은 색조군인 1area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4area는 S/S시즌, F/W시즌 모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S/S시즌의 색상은 비교적 채도가 높으며 RB계열에 집중 분포하였고, GY계열에도 다소 집중적이었다. F/W시즌의 색상은 S/S시즌과 마찬가지로 RB계열과 GY계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3년간 삼성디자인넷에 나타난 색조로는 1, 2, 3, 4area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색상은 BG계열을 제외하고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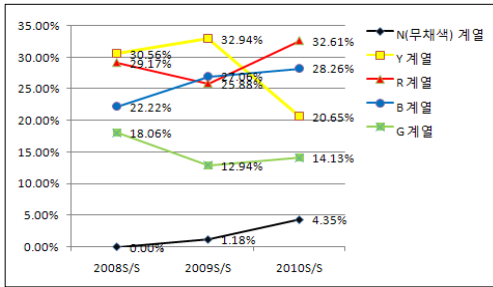
<표 8>은 자연색채계에 근거한 인터패션플래닝의 각 시즌별 트렌드 색채에 나타난 색상, 색조 분포도이다. S/S시즌에서는 무채색에 가까운 엷은 색조군인 1area와 밝으면서도 연한 색조군인 2area에 집중적이었으며, 색상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F/W시즌에는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군인 5area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군인 3area에 높은 분포로 나타났고, 색상은 YR계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전체 3년간 인터패션플래닝에 나타난 색조는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며 다른 영역에 비해 6area는 비교적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색상은 YR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RB계열에 다소 집중적이었다.

각 업체에 따른 트렌드 색채의 계열별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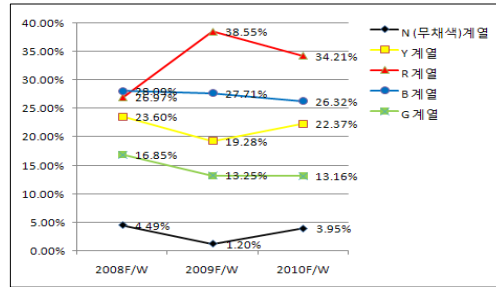
는 다음 <표 9>와 같다. 각 업체에 따른 색채의 계열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삼성디자인넷에서는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Y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N계열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인터패션플래닝은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삼성디자인넷과 마찬가지로 N계열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S/S시즌과 F/W시즌을 계열별 빈도수로 비교 분석하면, S/S시즌과 F/W시즌 모두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S/S시즌은 Y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 순이었고, F/W시즌은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S/S시즌과 F/W시즌의 색채 활용빈도에서 Y계열과 B계열의 빈도 순위를 제외하면 모두 동일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의 색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R계열,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 모두 R계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N계열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각 연도에 따른 색채계열의 변화도는 <그림 3>과 <그림 4>로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최근 3년간 S/S시즌의 색채계열의 변화도로 N계열은 2008년에 0%에서 2009년 1.18%로 증가하였고, 2010년 4.35%로 증가되었다. Y계열은 2008년 30.56%에서 2009년 32.94%로 증가, 2010년도 20.65%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R계열은 2008년 29.17%에서 2009년 25.88%로 감소하였고 2010년 32.61로 다시 증가



〈그림 3〉 S/S시즌의 연도별 색채계열의 변화도



〈그림 4〉 F/W시즌의 연도별 색채계열의 변화도

였다. B계열은 2008년 22.22%로 증가, 2009년 26.06%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0년 28.2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G계열 2008년 18.06%에서 다음해인 2009년에는 12.94%로 감소하였고 2010년 14.13%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4〉는 최근 3년간 F/W시즌의 색채계열의 변화로 N계열은 2008년 4.49%에서 2009년 1.20%로 감소, 2010년에는 3.95%증가하였다. Y계열은 2008년 23.60%에서 2009년도 19.28%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22.37%로 다시 증가하였다. R계열은 2008년 26.97%에서, 그 다음해인 2009년 38.5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4.21%로 감소하였다. B계열은 2008년 28.09%에서 2009년 27.71%로 감소하였고 2010년 26.32%로 다시 감소하였다. G계열은 2008년 16.85%에서, 다음해인 2009년에는 13.25%로 감소, 2010년에도 13.16%로 다시 감소하였다.

2011년 트렌드 색채기획의 기본색 설정을 위해 최근 3년간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패션 색채트렌드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여, 전문가 집단의 컬러 플래닝 자료를 토대로 심층회의 끝에 최종 선택 되어진 컬러를 대표색으로 선정하였다.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S/S시즌의 계열별 대표색은 다음과 같다. R계열 S5040-R, S0585-Y70R, S0585-Y80R, S7020-R10B 4색상, Y계열 S1005-Y20R,

S0505-Y, S0505-G70Y 3색상, B계열 S1550-R80B, S5540-R70B 2색상, G계열 S0575-G20Y, S1050-B70G 2색상, N계열 S0500-N 1색상, 총 12색상으로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군인 1area에 분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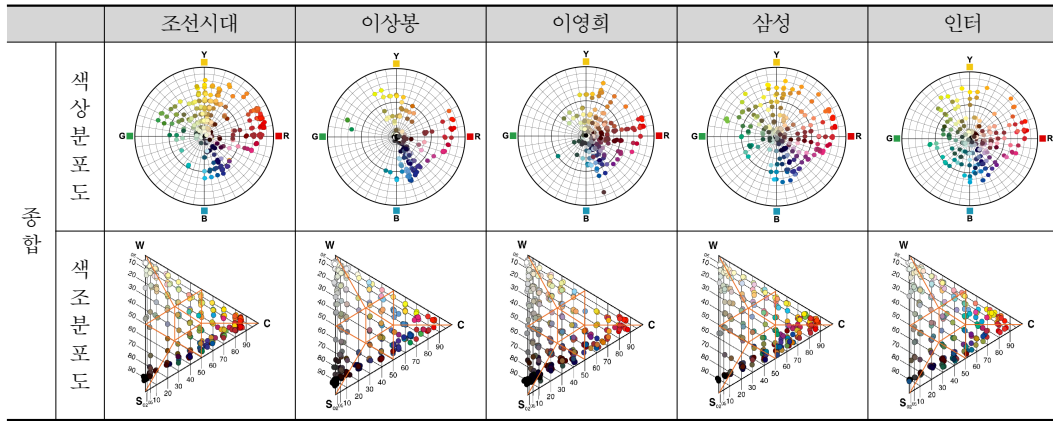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F/W시즌의 계열별 대표색은 다음과 같다. R계열 S0585-R80B, S1080-R, S2065-R20B, S6030-R10B 4색상, B계열 S5540-B, S5540-R70B, S8505-R80B 3색상, Y계열 S0575-G90Y, S3060-Y10R 2색상, G계열 S2005-B50G, S6030-G10Y 2색상, N계열 S9000-N, 1색상, 총 12색상으로 색조는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군인 5area에 분포하였다.

4. 트렌드 색채기획

〈표 10〉은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조선시대 복식, 국내 디자이너 이상봉, 이영희 컬렉션, 패션 정보 기획사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종합 색상, 색조분포도를 나타낸 표로서 다음과 같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조군인 3area와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인 4area에 높은 분포로 나타났고, 국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무채색에 가까운 옅은 색조군인 1area와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군인 6area에 다소 집중적이었다. 색상은 전반적으로 RB계열에

<표 10> 자연색체계에 근거한 종합 색상, 색조 분포도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BG계열은 인터패션플래닝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매우 낮은 분포도를 나타냈다.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색채와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의 색채 분포도는 그 연관성이 매우 깊게 나타났으며, 이영희 컬렉션은 GY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상봉 컬렉션은 RB계열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그 상관관계가 미미하였다.

컬러는 시즌마다 전적으로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의 컬러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진화하는 것으로 2011년 색채트렌드 또한 전 시즌의 컬러를 토대로 예측되어지고 진화해나가는 것이다.¹⁰⁾ 실제로 정보사는 매년 색채팔레트 30%정도를 새로운 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패럴 기획에서도 색채의 70%를 계속 유지하면서, 30% 정도를 새롭게 함에 따라 전체를 새롭게 보이도록 하고 있어¹¹⁾기본색과 새로운 색의 균형이 상품기획에 큰 주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트렌드 색채의 자료를 기본색으로 설정하고,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한국적인 색채를 새롭게 제시하여 한국의 전통성과 현대의 보편성이라는 새로운 테마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색채팔레트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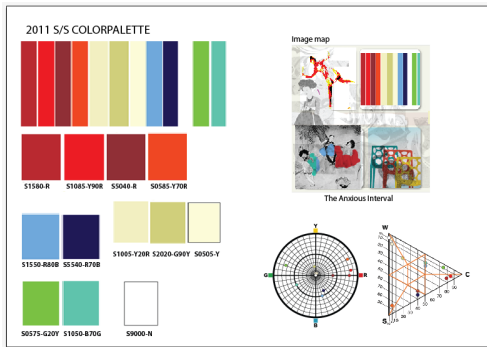
2011년 국내 패션색채트렌드 기획을 위해 기본 색 설정은 최근 3년간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의 색채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여, 전문가 집단의 컬러 플래닝 자료를 토대로 심층회의 끝에 최종 선택되어진 대표색을 기본색으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제시되어지는 30%의 컬러는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한국적인 색채를 바탕으로 2011년 S/S시즌에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영역으로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복의 대표색을 새로운 색을 제시하며, 2011년 F/W시즌에는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영역에 나타난 조선시대 남성복의 대표색을 새로운 색을 제시하여 컬러팔레트를 작성하였다.

<그림 5>는 본 연구의 2011년 색채 트렌드의 이미지 맵이며 ‘Universal Korea’라는 테마 아래 컨셉은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 이미 검증된 고전들을 재해석하여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통적이며, 현재와 과거라는 교집합 속에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적인 컬러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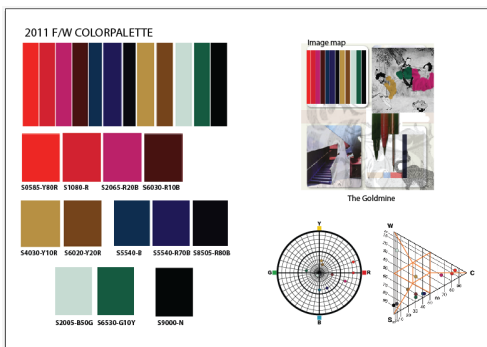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11년 S/S시즌의 트렌드 색채이며, 시즌 컨셉(season concept)은 ‘The Anxious Interval’로 동시대가 아니라고 느낄 정도의 오래된 시간이지만 가까운 과거이면서



<그림 5>
2011년 트렌드 색채의 이미지 맵



<그림 6>
2011년 S/S시즌 트렌드 색채 팔레트



<그림 7>
2011년 F/W시즌 트렌드 색채 팔레트

잊혀졌던 과거의 스타일과 현대의 트렌드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통과 보편성을 지닌 트렌드 컬러를 제안한다.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밝

은 색조균인 3area이며, 색상은 R계열 S1580-R, S1085-Y90R, S5040-R, S0585-Y70R, Y계열 S0505-Y, S2020-G90Y, S1005-Y20R, B계열 S1550-R80B, S5540-R70B, G계열 S0575-G20Y, S1050-B70G, N계열 S0500-N으로 총 12색상을 제시하였다.

<그림 7>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11년 F/W시즌의 트렌드 색채이며, 시즌 컨셉은 'The Goldmine'으로 과거 전통과 고유성이 재조명되는 문화적인 시대에 현재성을 부여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트렌드 컬러를 제안한다. 색조는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균인 5area이며, 색상은 R계열 S1080-R, S0585-Y80R, S2065-R20B, S6030-R10B B계열 S5540-B, S5540-R70B, S8505-R80B, Y계열 S4030-Y10R, S6020-Y20R, G계열 S6530-G10Y, S2005-B50G, N계열 S9000-N으로 총 12색상을 제시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 국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 트렌드 색채의 분석 결과를 근간으로 미래의 한국적 이미지 상품개발에 색상 정보로 활용 가능한 색채 범위를 색채 팔레트로 제안하여 2011년 한국적 색채특성을 반영한 트렌드 색채기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복식 120점에서 408색,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지닌 국내 디자이너 2인 이상봉, 이영희 컬렉션 240점에서 총 701색상, 국내 대표적인 패션 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트렌드 색채 497색상 총 1606개의 색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분석을 통해 한국적인 색채특징을 파악하고, 출현 빈도에 따른 계열별 대표색을 선정하였다. 남녀복식에서 각각 12색

상을 선정하였으며, 남성복식의 색조는 무채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조군인 6area에 분포하였으며, 여성복식의 색조는 유채색도가 높으면서 짙은 색조군은 4area에 분포하였다. 남녀복식에서 각각 12색상, 총 24개의 색을 선정하여 한국적인 색채를 규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색채기획을 위한 1차적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둘째, 한국적인 디자인요소를 지닌 디자이너 2인의 색채 분석 결과 이상봉의 컬렉션 색채 활용 빈도는 B계열이 가장 높았으며, N계열, R계열, Y계열, G계열 순이었으며, 색조는 특히 1, 6area에 집중적이었다. S/S시즌은 3년 모두 B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F/W시즌에는 2년간 N계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시즌별 색채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영희의 컬렉션 색채 활용 빈도는 R계열이 가장 높았고, B계열, Y계열, N계열, G계열 순이었고, 색조로는 무채색에 가까운 엷은 색조군인 1area와 4area, 6area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셋째, 최근 3년간의 국내 패션정보기획사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트렌드 컬러 분석결과 S/S시즌은 R계열, Y계열, B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는 밝으면서 연한 색조군인 2area에 분포하였고, F/W시즌은 R계열, B계열, Y계열, G계열, N계열 순으로 나타났고, 색조는 어두우면서 짙은 색조군인 5area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또한 2011년 트렌드 색채기획의 기본색 설정을 위해 최근 3년간 삼성디자인넷과 인터패션플래닝의 패션 색채트렌드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여, 전문가 집단의 컬러 플래닝 자료를 토대로 심층회의 끝에 최종 선택 되어진 컬러를 대표색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분석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트렌드 색채의 대표색을 기본색으로 설정하고, 조선시대 복식의 색채분석을 통해 규명된 한국적인 색채를 새롭게 제시하여 한국의 전통성과 현대의 트렌드 감성

이 어우러진 Universal Korea라는 새로운 테마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색채분석 결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패션디자이너 2인 중 이영희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 활용 특성은 조선시대 여성복식의 색채 활용 특성과 트렌드 색채 활용에 있어서 R계열과 Y계열의 활용 빈도 순위가 모두 동일하게 나왔으며, 색조군 또한 1area, 4area에 집중 분포하여 그 연관성이 매우 깊게 나타났으며, G의 색채 활용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이영희 컬렉션에는 한국적 색채 활용 특성과 트렌드 색채 활용 특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상봉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은 조선시대 색채 활용 특성과 트렌드 색채 활용 특성 모두와의 연관성이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디자이너 본인만의 색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영희 컬렉션 속에 과거 한국 전통 색채와 미래 트렌드 색채가 공존하여 과거·현재·미래라는 연속선상의 색채 맥락을 통해 미래의 한국적 이미지 상품개발을 위한 색채정보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Universal Korea라는 새로운 테마에 부합하는 2011년 S/S 시즌과 F/W시즌의 실용적인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여 색채기획을 수립하였다는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색채분석만을 토대로 색채기획을 하였다는데 제한점을 둔다. 향후 후속 연구의 방향은 한국적 색채를 다른 색체계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되는지 분석하고, 아울러 색채 조화론에 입각하여 배색의 모형유형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색채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후속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1) 김새봄, 제기연, 박인조, 예지영, 이경희 (2009).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1), p.24.
- 2) 이미란 (2008).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9-65.
- 3) 윤소영 (2007. 7. 14). 이상봉 디자이너, fashionbiz, 자료검색일 2009. 10. 7. <http://fashionbiz.co.kr/PE/main.asp?cate=2&idx=103291>
- 4) 황수현 (2009. 10. 5). 한국형 패션 글로벌 브랜드, 인터넷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2009. 10. 5. <http://weekly.hankooki.com/lpage/arts/200910/wk20091005152401105190.htm>
- 5) 백은성 (2005). 신규 패션브랜드 웹사이트 색채계획 연구, 한국색채학회, 19(3), p.22.
- 6) 이재만 (2005). 한국의 색, 서울: 일진사, p.9.
- 7) 이호정 (1999).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102.
- 8) 도쿄상공회의소 (2009). 컬러코디네이션의 실제 제1분야 패션색채, 서울: 휴엔즈, p.18.
- 9) 백은성. 앞의 논문, p.23.
- 10) 백민영, 김유경 (2009). 국내 패션색채트렌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9(3), p.86.
- 11) 사카구찌 마사야키 (1995). 탈트렌드 주의, 서울: 포텍스, pp.47-49.

The Trend Color Planning on Analysis of Characteristic of Korean Color

Baek, Min Young · Kim, Yu Kyung[†]

Graduate student,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 broad range of colors based on the Natural Color System (NCS) - selected from 120 colors found in the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from Chosun dynasty, another 120 from Lee Sang Bong and Lee Young Hee's collections, who are two Korean designers with traditional influences, and another 497 colors that have been chosen by local fashion agencies: Samsung Design Net and Inter Fashion Planning - in order to create a color palette to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erchandises as well as in the planning of trend colors for the 2011. The finding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ring Chosun dynasty, Y series was us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R, B, N and G. As for men's clothing, Y series appeared most frequently whereas R series was most frequently used in the women's. This indicates some color preferences by gender. Second, among the colors used in Lee Sang Bong and Lee Young Hee's collections, Lee Sang Bong has used B series the most, followed by N, R, Y, and G. In Lee Young Hee's collection, R series has appear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B, Y, N, and G, which in fact is the same order as Chosun dynasty's womens' clothes except for B and Y series. There is a rather loose correlation between the colors from Lee Sang Bong's collection and those of Chosun dynasty in terms of the order of frequency.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rend color for the past three years by agencies, the order of frequency turns out to be R, Y, B and G for the S/S season, and R, B Y G, and N for the F/W season. Incorporating the traditional Korean color schemes with the contemporary trend colors proposes the Universal Korean color palette, a new way of promoting Korean culture.

Key words: color trend, fashion trend, Natural Color System, Korean color, color planning